"지역사회 선도하는 중심사찰로 변모"

Interview

내소사 진성 스님

지역사암연합회 결성 추진
사회현안 관심 두고 소통
사라진 지역연등제 되살리고
다문화가정 포교에도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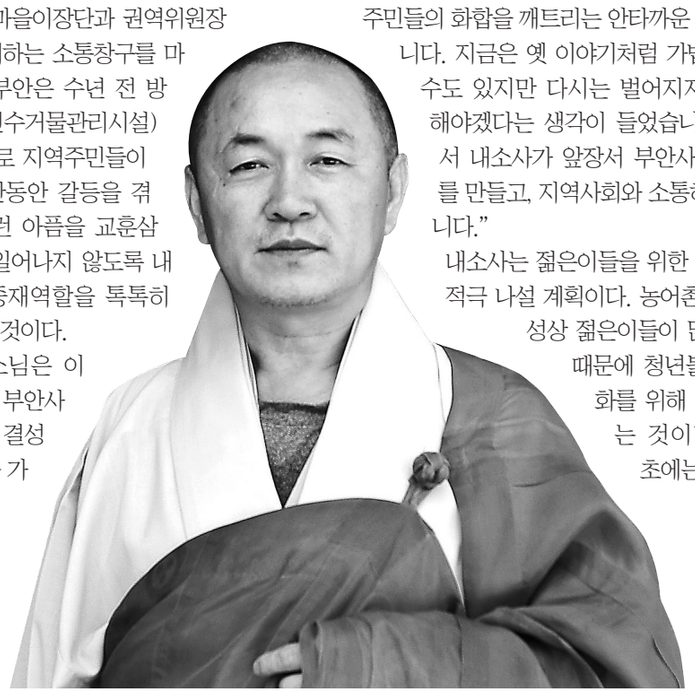
"내소사가 부안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미진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부안의 경제문화협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신문화 창달에도 중심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내소사가 지역사회 공헌을 화두로 삼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7월 21일 내소사서 만난 진성 스님〈사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사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내소사는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고충을 함께하며 발전해왔다. 내소사 주도로 주민들과 실시해온 석포리 당산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내소사 선지식인 해안선사와 혜산 스님은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해 수학여행을 후원하기도 했다.

"부안에서 내소사가 차지하는 역할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것을 지역주민과 나누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내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지역사회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내소사는 지역주민들과 주기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마을이장단과 권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부안은 수년 전 방폐장(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문제로 지역주민들이 갈라져 한동안 갈등을 겪었다. 이런 아픔을 교훈삼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소사가 중재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것이다.



진성 스님은 이 일환으로 부안사암연합회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스님들이 상의하며 사찰과 지역사회 가교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사암연합회는 예비 모임을 거쳐 조만간 결성될 예정이다. 부안사암연합회를 통해 1990년대 중반까지 봉행됐던 부안지역 연등제도 다시 살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거 지역문제로 대두됐던 방폐장 논란은 주민들의 화합을 깨트리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옛 이야기처럼 가볍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소사가 앞장서 부안사암연합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내소사는 젊은이들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젊은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달 초에는 지역 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내소사 당산나무에 던진 동전과 사부대중의 모연을 통해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에도 나선다. 아울러 최근 시작한 의상봉 공군부대 법당 지원도 꾸준히 할 계획이다. 또 부안경찰서와 부안해경을 위해 정기법회를 열고, 경승실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접촉 중이다. 이처럼 내소사는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 갖고 참여하면서 원만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요즘은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교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민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포교가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포교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내소사가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한편 내소사는 현재 종단과 24교구의 1년간에 걸친 실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진성 스님은 주지가 아닌 사찰관리인으로 부임해 있지만 "누가 주지가 되더라도 내소사가 지역사회에서 불교를 대표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암사 청년회 "회원 모두 하나로"

7월 16일 창립법회… 초대회장 남청우



불암사 청년회는 7월 16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초대회장으로는 남청우 씨가 임명됐으며, 총 회원은 40여명이다.

이날 남청우 회장은 "올바른 경전해석을 통한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청년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해 법회 활성화를 꾀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친교를 나누는 청년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우리는선우, 불교학당 30명 수료

3개월 과정, 철학 · 경영학 등 배워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유필화)는 7월 18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6층서 '불교학당 종강식'을 개최했다.

5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된 불교학당은 철학 · 경영학 · 콘텐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불교와 결합시켜 강의했다. 이날 종강식서 재가불자 30여 명이 수료증과 상장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장병들 마음에 평화 · 온기 가득하길"

조계종 군종교구, 제1항공여단 비천사 낙성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7월 14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육군 제1항공여단 신축법당 비천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하남시사암연합회장 학명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남장 김갑영 법사, 박기연 제1항공여단장, 경기지역 포교사단 및 불자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천사는 2013년 컨테이너 시설로 조성된 법당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남시사암연합회 소속 스님과 포교사들은 매주 법회를 주관해오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신축공사를 시작한 비천사는 2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120㎡ 규모의 법당과 대중방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낙성법회서 하남시사암연합회장 학명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신축법당이 들어선 만큼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부처님 법대로 사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남장 김갑영 법사는 "이 법당이 군장병들의 마음에 평화와 온기를 주는 의지처가 될 것"이라며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기연 제1항공여단장은 "오늘의 불사 인연공덕으로 부대 무사고와 안전비행을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기부 · 포교 동시에! '1석 2조' 나눔

아름다운동행, 아이들에게 사천왕 노트 1200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 팥빙수도 함께 선물

아름다운동행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함께 기부하고, 불교문화도 전파하는 '1석 2조' 나눔행사에 나선다.

어린이들에게 팥빙수를 선물하는 'HOT한 여름, COOL한 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인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어린이 1200명에게 팥빙수와 함께 사천왕 노트를 전달한다. 사천왕 노트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이 템플스테이 홍보관 체험 프로그램 수익금 180만원을 기부해 마련했다.

이명희 템플스테이 홍보관 매니저는 "보시함에 모인 체험 프로그램 수익금을 어디에 기부할까 고민하던 중 아름다운동행을 알게 됐다"며 "올해 초까진 수익금 및 보시금을 직접 기부했지만, 아이들이 불교문화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사천왕 노트를 선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천왕 노트를 통해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알고, 이와 더불어 불교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 비치된 불교문화사업단 보시함.

템플스테이 홍보관 담당 태허 스님은 "사천왕은 절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라며 "이처럼 사천왕 노트가 아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역아동센터 50개 기관을 선정, 7월 22일 30만원 상당의 팥빙수 세트와 사천왕 노트를 배분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연꽃생협, 백화점식 기부행사 진행

지역복지시설에 의류 · 필수품 6000여점 전달



연꽃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전준호)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한부모 보호시설 · 여성보호센터 · 노숙인 쉼터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백화점식 기부행사'를 개최, 취약계층에 생활용품을 전달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연꽃생협은 여성의류 및 생활필수품 6000여점을 홈페이지에 공개, 복지기관 이용자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신청받아 해당 시설에 전달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7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 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 (빠른우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 (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Tel : (+86)25-85811079
Fax: (+86)25-85811078
E-mail: overseas@njucm.edu.cn
Website: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교학처 : (02)511-2026,2027
Fax (02)511-2028
학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